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3~’27) 발표

-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향한 감염병 정책 추진방향 발표
- 기본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 중앙-지자체간 정책 일관성 및 연계 강화

주요 내용

- (추진배경) 향후 5년간(‘23~’27)의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중앙-지자체 간, 감염병 관리대책 간 통합적·유기적 추진
 - (주요내용)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정책목표와 기본원칙(근거기반, 형평성, 혁신, 국내외 협력, 소통참여) 마련
- * 4개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추진전략	핵심과제
I.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① 감염병 위기 대비 태세 확립 ②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③ 생물안보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철저
II.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① 원헬스 기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② 상시 감염병 예방 관리 ③ 만성 감염병 퇴치 추진 ④ 고위험군 보호·관리 강화
III. 감염병 관리를 위한연구 및 기술혁신	① 근거중심 방역체계 강화 ② 감시·조사체계 다각화 ③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 ④ 백신 및 치료제개발 연구 주도
IV.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① 다부처, 지자체 및 민관 협업 확대 ② 지역사회 참여, 역량 및 소통 강화 ③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구축 ④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⑤ 감염병관리 R&D 기반 공고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종합적·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23~’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감염병예방법」 제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

질병관리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앙-지자체와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제2차(’18~’2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강화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 구축 ▲상시 감염병의 사전 예방·관리체계 공고화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중앙·지역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강화,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운영,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폴리오 박멸 및 풍진·홍역 퇴치인증 유지, 결핵발생률 감소 등

제3차(’23~’27) 기본계획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의 경험과 감염병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였다.

본 계획은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해 ▲코로나19를 넘어 미지의 감염병(Disease X)까지 대비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의 목표로 5개 기본원칙(근거기반·형평성·혁신·국내·외 협력·소통·참여)을 설정하였다.

* 4개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55개 세부과제(①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②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③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④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전략1]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① 감염병 위기 대비 태세 확립

감염병 위기대비를 위해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간 감염병 감시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 WHO본부 및 지역사무소 설치, 국내 ODA기관, 아세안의료기관 현지 네트워크

감염병별 병원체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하여 신속하게 신종 변이 발생을 확인하고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국외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활용범위도 확대된다.

* ('22) 8개 공항 500만명 → ('23) 7개 항만 45만명 추가 확대

②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현장대응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법정 의무화하고, 역학분석전문가 및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글로벌리더*를 양성한다.

* WHO 등 국제기구, 주요국 공중보건위기협력프로그램(Emergency Programme) 파견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감염병 위기시 활용할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27년까지 8개 민간기관 인증 목표, 공공분야 신속진단체계(질병관리청 본청 및 질병대응센터(5개소), 보건환경연구원(17개소) 등)는 마련 완료

다부처 위기대응훈련*을 정례화하고,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 대책반 운영 매뉴얼 신규 개발 및 기관특화 훈련을 내실화한다.

* 검역단계 인지, 지역사회 전파 등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③ 생물안보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 철저

생물테러감염병 현장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 및 비축을 완료('25년)하고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를 보급('27년)한다.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전략2】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핵관리종합계획,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 등 상시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선제적 접근, 원헬스 정책 활성화(인간-동물-환경간 다분야·다학제 접근) 및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 형평성 제고를 포함한다.

① 원헬스 기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원헬스 기반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 및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공동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 참여 종합병원 확대 등 항생제 내성 관리를 강화하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 발생·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권역-지역 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한다.

②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비의료인(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을 마련한다.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레지오넬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인플루엔자 외래 감시, 급성호흡기 입원환자 감시 등, 코로나19 등급 조정(2급→4급)시 감시대상에 추가할 예정

모기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는 위험지역(인천, 경기, 강원) 주의보·경보 발령 및 관리 대상 시·군·구를 확대하고 잠재적 위험지역을 신설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 관리대상 시·군·구 20개→30개, 잠재적 위험지역(서울, 경기남부 등 18개 시군구) 신설

감염병의 특성,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를 마련할 계획이다.

③ 만성 감염병 퇴치 추진

결핵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진비 및 확진검사비를 지원한다.

* 10만명당 결핵 신환자 발생률 ('23) 28명 → ('27) 16명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감염취약군 예방전략을 강화하여 신규 감염 감소를 추진하고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 상담 및 조기치료를 지원한다.

바이러스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를 실시한다.

* 10만명당 B형간염 사망률 ('15)20.8명→('27)12.5명, C형간염 사망률 ('15)2.5명→('27)1.5명

④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관리 강화

장애인,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거주시설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교정시설의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군부대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지원시스템 개발 및 국군의학연구소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학교의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보완 및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예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학교-가정 간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 유치원, 초등학교(1~3학년/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 각각 개발·교육 실시

【전략3】 감염병 관리 연구 및 기술혁신

그간 분절적으로 수집·관리되던 감염병 관련 데이터 통합·연계하고, 다양한 감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하며,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를 주도할 계획이다.

① 근거중심 방역체계 강화

감염병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의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다.

잠복기, 2차 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규모 접촉자를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 유행양상 등 감염병 위기대응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를 추계한다.

② 감시·조사체계 다각화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통합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항생제내성균,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등 병원체 감시를 확대(병원체, 대상기관)한다.

하수(下水)감시로 기존 감염병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생활하수 검사기관을 확충하여 무증상자 병원체 검출을 확대한다.

* 전국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율 ('23) 50% → ('24) 60%
(측정방법 : 전국 인구수 대비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감시 대상 하수처리장 처리지역 관할 인구수 비율(%))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의 예방접종 효과분석을 위한 정기 혈청조사체계를 마련한다.

③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

국내 유입 및 확산이 가능한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대한 다중진단검사법 구축 등 진단기술법 개선으로 진단검사의 정확도 및 신속성을 향상한다.

④ 백신 및 치료제개발 연구주도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이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A형간염, 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세포침투, 자기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전략4】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의료시설·방역물자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를 견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다부처·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구개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① 법·제도 재정비 및 협업 확대

감염병 대응 주관기간(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 간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유관협의체 및 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

② 지역사회 참여, 역량 및 소통 강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감시·분석, 현장대응 등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한다.

*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지역전문가 단체 등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국민소통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③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구축

신속대응체계 구축 및 장기유행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23)」을 추진한다.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 및 권역 감염병병원을 확충하고 위기대비 물자·장비 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④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설치 추진 및 해외감염병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 글로벌 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대륙별 거점국가를 대상으로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실험실진단, 역학조사 등 글로벌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 ('22)아세안, 라오스 등 2개국 → ('23)몽골, 아프리카 등 4개국 → ('24~)중동지역 국가추가

국외 병원체자원은행 협력체계(독일, 싱가포르 등)를 통한 자원교류 및 생물안전4등급시설(BL4)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를 추진한다.

⑤ 감염병관리 R&D 기반 공고화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 병원체 설정, 진단-치료-백신 연구성과를 위한 혁신원천기술 확보 방안 등 R&D 총괄기획을 실시하고, 현장수요에 기반한 감시-예측-차단-진단-방역물품 중점개발기술 연구를 추진한다.

국내 보유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자원 다양성을 확보하고 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한 민간분양 활성화 등 연구자원 공공인프라를 강화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및 시·군·구는 이와 연계하여 지역 내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며,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향후 5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 개요
 2.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 핵심지표
 3.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요약)

담당 부서	감염병정책국	책임자	과 장	하 진	(043-719-7120)
	감염병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문선	(043-719-7101)

□ **수립 개요**

- **(목적)**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국가 감염병 관리의 통합적인 추진과 평가

- **(법적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제7조
- **(수립 절차)**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시행
 -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수립 주기)** 5년을 주기로 수립(제1차 : '13~'17년, 제2차 : '18~'22년)

- **(추진경과)**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22.3월),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안) 개발('22.3월~'23.1월), 지자체·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22.4~12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2.27.),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보고(3.23.)

* (기간) '22.3~12월, (참여) 질병관리청, 관계부처(복지부, 식약처 등), 학계 및 전문가 등

□ **제2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 **감염병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강화, 원헬스협력체계 구축,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공고화 등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

* 다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 다른 종합계획·관리대책과의 연계성 부족, 성과 지표 관리체계 등에 있어 향후 보완 필요

- **(성과)** 신종 및 원인불명 질환 대응과 원헬스 협력체계를 중점과제로 선정하는 등 미래의 감염병 유행 대비를 강조

* 최종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은 89.9%, 코로나19 유행 상황 고려 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중앙·지역의 감염병 대응조직 강화, 대규모 환자 발생 대비 전문병원 지정·운영, 검역업무 효율화·전문화 등
- 감염병관리위원회 기능 확대, 감염병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부처 공동대응절차 매뉴얼 마련 등

- **(한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성과달성 한계, 관련 종합계획·대책과의 연계성 부족, 과제 및 지표선정·관리의 미비점 등

□ 제3차 기본계획 주요내용

☞ (비전)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목표) ◆ 코로나19를 넘어 Disease X까지 대비

◆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

기본원칙

근거기반

형평성

혁신

국내외
협력

소통·참여

1 기본 추진 방향

- ① 근거에 기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전략 개발과 혁신
- ② 누구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감염병 건강형평성 확보
- ③ 국제사회, 범부처 및 민간 협력과 연계 강화
- ④ 소통과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 정책 지향

2 중점 추진 과제(4개 추진전략, 16개 핵심과제, 55개 추진과제)

추진전략

핵심과제

I.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 ① 감염병 위기 대비 태세 확립
- ②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③ 생물안보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철저

II.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① 원헬스 기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 ② 상시 감염병 예방 관리
- ③ 만성 감염병 퇴치 추진
- ④ 고위험군 보호·관리 강화

III. 감염병 관리를 위한연구 및 기술혁신

- ① 근거중심 방역체계 강화
- ② 감시·조사체계 다각화
- ③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
- ④ 백신 및 치료제개발 연구 주도

IV.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 ① 다부처, 지자체 및 민관 협업 확대
- ② 지역사회 참여, 역량 및 소통 강화
- ③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구축
- ④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⑤ 감염병관리 R&D 기반 공고화

3 향후 일정계획(안)]

- 「제3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23)

성과지표	추진 목표				
	'23	'24	'25	'26	'27
①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병원체유전자정보 DB 등록률	50%		➔		70%
감염병진단검사 인증기관수	0개소		➔		8개소
탄저백신 개발 및 비축		품목허가	생산·비축		
② 체계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원헬스 추진체계 구축		훈령제정			
말라리아 국내환자 발생건수	300명		➔		0명
바이러스 간염(B형·C형) 사망자 수(명)	407명		➔		361명
결핵 신환자수(10만명당)	28명		➔		16명
③ 감염병 관리 연구 및 기술 혁신					
방역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구축완료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구축완료			
벡터넷 감시자료 등록률	75%		➔		95%
항생제내성 감시대상 균종 확대 건수	8종		➔		13종
전국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율	50%		➔		75%
미래감염병 검사법 개발 및 검증	1건		➔		5건
치료제 기술 개발 건수	8건		➔		18건
백신치료제 임상 IND 승인 건수	2건		➔		16건
④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중앙감염병 병원 구축	설계공모		➔		시공 (계속)
국가비축 방역물품 상시비축률	87.5%		➔		100%

1 개요

① 수립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제2차 기본계획('18~'22) 종료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23~'27) 수립

· (기본계획의 성격)

-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 목표, 추진방향,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국가 감염병 관리의 통합적인 추진과 평가
- 감염병별 관리대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중앙-지자체-유관기관 간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과 연계

② 관련법률 및 종합계획

- (주요유관법률 및 규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결핵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제보건규칙(WHO) 등
- (감염병 관련 종합계획) 개별 감염병의 예방·관리, 관리체계 및 인프라, R&D 분야 등 15개의 대책과 연계하여 수립·추진 중

③ 추진경과

- 질병관리청 전담팀 및 외부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22.3월~)
 - * 질병관리청 및 관계부처 등으로 제3차 감염병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
- 제2차 기본계획 성과평가 및 제3차 기본계획(안) 개발('22.3~'23.1월)
 - * 질병관리청, 관계부처, 학계 및 현장전문가 참여 포럼 개최(7회, '22.4월~10월)
-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의결('23.2월)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3.23) 보고

④ 향후계획

- 「제3차 감염병예방관리 기본계획」 발표(상반기)

1 성과

◆ 중점과제 5개, 세부과제 24개, 성과지표 63개로 목표 달성률은 89.9%

- ① 감염병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강화 ②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 구축
 ③ 상시 감염병의 사전예방·관리체계 공고화 등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

○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 구축

- 우선 대비 필요 감염병(16종*) 진단법 구축, 원인불명 질환 대응지침 마련 등 미래감염병에 선제적 대비

* E형간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비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진드기매개재귀열 등

-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 구축(19), 권역감염병전문병원(5개소) 지정, 17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등 대응인프라 구축

○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 구축

-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 수산물안전관리 관계기관 협력회의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강화
- 사람-가축 공동역학조사서 개발, 원헬스포럼 운영 등 범부처·다분야 대응체계 강화 및 관계기관합동 관리계획 수립·추진

○ 상시감염병의 사전예방·관리체계 공고화

- 박멸감염병 폴리오 및 퇴치감염병 풍진·홍역의 국내발생 Zero 및 세계보건기구 퇴치인증 유지
- 초·중학교 입학생 대상 미접종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확인사업 안착으로 어린이 예방접종률 제고(초등 6.8%p↑, 중등 8.6%p↑)
- 결핵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및 치료 통합서비스 제공 등 검진·치료 접근성 확대로 결핵 발생률* 지속 감소

* 국내 10만명 당 신환자발생률 : ('20) 38.8명 → ('21) 35.7명 → ('22) 31.7명

-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으로 유병률감소(3.2%→2.7%),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근거 마련

○ 감염병 대응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 미래감염병 16종* 검사법, 증후군별 병원체 5종** 검사 알고리즘과 호흡기·출혈열, 발진 증후군 다중검사키트 개발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E형간염, 마비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리프트밸리열 등 16종

** 호흡기, 출혈열, 발진, 신경, 설사 증후군

- 감염병 진단검사법 기술이전(질병대응센터 35종, 보건환경연구원 75종)
- 감염병 발생신고정보 등 기존 DB연계 및 정제 등을 통해 대시보드형태의 통계 제공 누리집 개통('22)
- 필수예방접종인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및 자궁경부암 백신 임상1상 승인 등 백신 국산화 추진

○ 감염병 대비·대응 인프라 강화

- 감염병 전자신고시스템 사용 의료기관 전수확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완공('21), 병원체유전자정보DB 구축('22)등 인프라 확대
- 글로벌 감염병 대응 공조를 위한 해외파견 확대, 국제협력실무협의체 등 정보공유체계를 통해 신속·정확한 국제협력기반 마련

② 한계 및 시사점

- 2차 기본계획 추진기간 중 발생한 코로나19 유행으로 예방접종률, 역학조사실시율 등 일부 과제 추진에 영향
- 주요 관리대상 감염병, 취약계층의 보호 등 과제선정의 미비점과 성과지표의 변경 등으로 전반적 성과관리에 제약
 - 중도 성과지표 변경 또는 목표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감염병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절차 마련 필요
-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수립·추진중인 감염병별·관리체계별 종합계획(15개)과 과제·성과지표가 상호포괄하는 연계성 강화 필요

□ 코로나19 대유행과 세계 감염병의 변화

- 3T전략을 통한 효과적 대응과 높은 예방접종률로 코로나19 중증·사망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으나, 인적·물적·인프라의 한계도 노정
 - * Test(검사) - Tracing(추적) - Treatment(치료)
- 코로나19의 가공할만한 파급력은 향후 신종감염병(Disease X) 출현 대비 국제사회의 공조와 함께 보다 고도화된 공중보건 역량 요구
- 기후변화로 인한 물·토양·매개체 등 환경의 영향, 세계 네트워크 확장 등은 수인성·인수공통·매개체 감염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

□ 의료감염 부담과 원헬스 정책화

- 고령 및 면역저하환자 증가, 침습적 의료기술 사용 확대로 항생제 내성균을 포함한 의료관련 감염 지속 증가
 - *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종(CRE) 감염증 발생/사망이 5년동안 약 2.6/3.7배 증가 ('18년) 11,954/141명 → ('22년) 30,522/527명
- 사람-동물-환경 인터페이스에서의 비정상적인 질병·병원체 순환을 줄이기 위한 원헬스 관점 정책이 세계적 공동행동으로 연결
 - * WHO(사람)·WOAH(동물)·FAO(토양)·UNEP(환경) 연합 5개년 공동행동계획 수립

□ 감염병 대응 수단의 다양화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의 감시 및 유행예측, 원인분석 등 감염병 관리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 증가 예상
 - '감염병 빅데이터플랫폼사업('22~'24)' 등 IT기술 활용으로 감염병 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 강화
- 기존 매스미디어·활자매체에서 인터넷방송·소셜미디어 등이 주요 매체로 등장, 가짜뉴스·인포데믹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 필요

비전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

목표

- 코로나19를 넘어 Disease X까지 대비
- 민·관 및 국제협업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고도화

4개 추진전략 ↔ 16개 핵심과제 ↔ 55개 세부과제

추진 전략

01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 1 감염병 위기 대비 태세 확립
- 2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3 생물안보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 철저

02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1 원헬스 기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 2 상시 감염병 예방 관리
- 3 만성 감염병 퇴치 추진
- 4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관리 강화

03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 1 근거중심 방역체계 강화
- 2 감시·조사체계 다각화
- 3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
- 4 백신 및 치료제개발 연구 주도

04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 1 다부처, 지자체 및 민관 협업 확대
- 2 지역사회 참여, 역량 및 소통 강화
- 3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구축
- 4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5 감염병관리 R&D 기반 공고화



추진 방향

- ❖ 코로나19 대응경험을 기반으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 체계 및 대응 역량 고도화**
- ❖ **고위험병원체 관리 등 생물안보 강화**

① 감염병 위기 대비 태세 확립

- **(감염병 위기대비)** 국외 발생·유행 감염병을 실시간 감시·분석하고 국제기구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간 감염병감시정보교류 활성화
* WHO본부 및 지역사무소 설치, 국내 ODA기관, 아세안의료기관 현지 네트워크
- **(신종변이 조기인지)** 감염병별 병원체유전정보DB를 축적하여 감염병 원인 병원체의 신종 변이 발생 신속 확인 및 심층 분석
- **(국외감염병 유입 대비)** 국가간 이동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증가에 대비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활용 범위 확대
* ('22) 8개 공항 500만명 → ('23) 7개 항만 45만명 추가 확대

②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 **(대응역량 강화)** 공무원·역학조사반원 등 감염병위기상황 현장대응 인력 및 예비방역인력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법정 의무화 추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조항 신설
- **(관리자양성)** 감염병 역학적 특성 심층분석 역량과 경험을 겸비한 역학분석전문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위한 글로벌 리더* 양성
* WHO 등 국제기구, 주요국 공중보건위기협력프로그램(Emergency Programme) 파견

- **(진단검사 신속대응체계)** 위기 시 감염병 종류에 무관하게 즉시 검사 가능한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27년까지 8개 민간기관 인증
 - * 질병관리청청, 권역별질병대응센터(5개소), 보건환경연구원(17개소) 등 공공 분야 신속진단체계 旣 완비
- **(모의훈련 체계화)**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 주도 하에 검역단계 인지, 지역사회 다수전파 등 시나리오 기반 다부처 위기대응훈련 정례화

공중보건위기 대응 모의훈련 과정



-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 대응체계)** 지자체, 의료기관 등 대응주체별 세분화한 대책반 운영 매뉴얼 신규 개발 및 기관특화 훈련 내실화

3 생물안보 및 고위험병원체 관리 철저

-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현장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탄저백신 국내 생산·확보('25) 및 키트 활용 검사법 표준절차서 보급('27)
-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위해도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차등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협의체 운영

BL3(Biosafety Level 3)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계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민간기관
82개소	57개소	12개소	9개소	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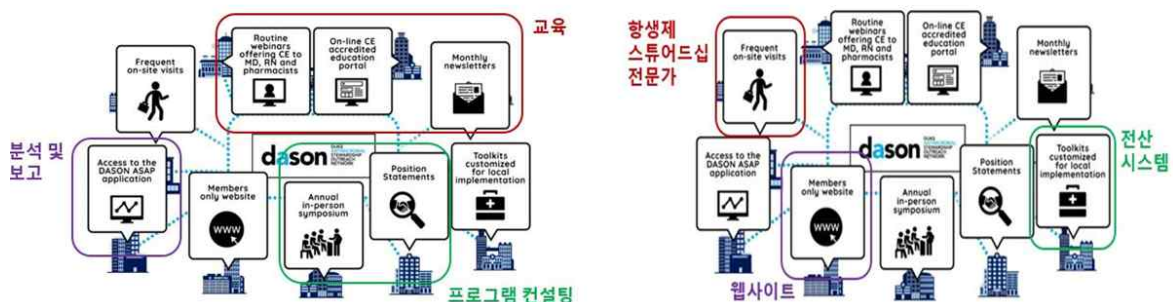
추진 방향

- ❖ 인간-동물-환경간 다분야·다학제 접근의 원헬스 정책 활성화
- ❖ 상시감염병의 확산, 집단발생 선제적 예방·관리 및 만성감염병의 퇴치 추진
- ❖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형평성 제고

1 원헬스 기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 (원헬스기반 협력체계) 사람-동물-환경 간 질병순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 핫라인 확보 등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총리훈령 제정 추진
- (인수공통감염병) 사람-동물 간 감염실태조사로 통합감시를 강화하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인체·동물에서의 공동위험평가 실시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계획」수립·추진 (2023~2027)
- (항생제내성)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프로그램(ASP) 참여 종합병원이 '22년 58개소에서 '25년까지 쏘 종합병원(362개소)으로 확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수립·추진 (2021 ~ 2025)
* 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형병원-중소병원 지원체계 시범사업 병행 실시

대형병원-중소병원 ASP 네트워크 프로그램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다양한 감염경로 등 위험요소 감시 및 중앙-권역-지역간 실시간 대응체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집단발생·확산 방지

②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 **(의료관련감염)** 요양병원 등 감염관리 취약기관 감시지표 개발 및 비의료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방안(연간 일정시간 이수) 마련 추진

* 의료기관의 미화원 및 간병인,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수립·추진 (2023 ~ 2027)

- **(호흡기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레지오넬라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시설별 가이드라인 개발

* 인플루엔자외래감시, 급성호흡기 입원(중증)환자 감시, 보완적 감시 등

의료기관급		감시체계	감시대상
의원급	임상(외래)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38°C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병원체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	(바이러스 9종) 아데노, RSV, 코로나19 등
병원급(입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9종) 아데노, RSV, 코로나19 등 (세균 2종) 마이코플라스마균, 클라미디아균
종합병원급(중환자)		중증급성호흡기	(바이러스 9종) 인플루엔자, 아데노, 리노 등 (세균 4종) 폐렴구균, 레지오넬라 등

※ 코로나19 등급 조정(2급→4급) 시기에 맞춰 감시대상에 추가 예정

- **(매개체감염병)** 말라리아 위험지역(인천,경기,강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주의가 필요한 시기에 주의보·경보 발령

* 관리대상 시·군·구 20개→30개, 잠재적 위험지역(서울, 경기남부 등 18개 시군구) 신설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수립·추진 (2024 ~ 2028)

- **(예방접종 확대)** 감염병의 특성, 백신의 비용효과성, 공중보건학적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마련

③ 만성 감염병 퇴치 추진

- **(결핵예방관리)**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돌봄시설 근로자·간병인 등 전파 위험군 및 발병위험군 대상 검진비·확진검사비 지원

* 10만명당 결핵 신환자 발생률 ('23) 28명 → ('27) 16명

※「결핵관리종합계획」수립·추진 (2023 ~ 2027)

- **(에이즈·성매개감염병)** 청년층 및 감염취약군 예방전략 강화로 신규 감염 감소, 에이즈예방지원센터 등 조기발견·상담·조기치료 지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수립·추진 (2024~2028)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대책」수립·추진 (2022~2026)

-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연계 실시

* 10만명당 B형간염 사망률 ('15)20.8명→('27)12.5명, C형간염 사망률 ('15)25명→('27)1.5명

※「제1차 바이러스 간염(B형·C형) 관리 기본계획」수립·추진 (2023~2027)

4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관리 강화

-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등 거주시설 감염병예방관리 매뉴얼 정비, 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체계를 마련
-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구성으로 시설별 특성에 맞는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 **(군부대)** 감염병 발생시 신속대응을 지원하는 감염병 감시지원 시스템 개발 및 국군의학연구소 BL3연구시설 확충 등 인프라 확대
- **(학교)** 국가필수예방접종 확인 대상을 초·중학교에서 시행하고, 학교급별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자료 개발·보급

3

감염병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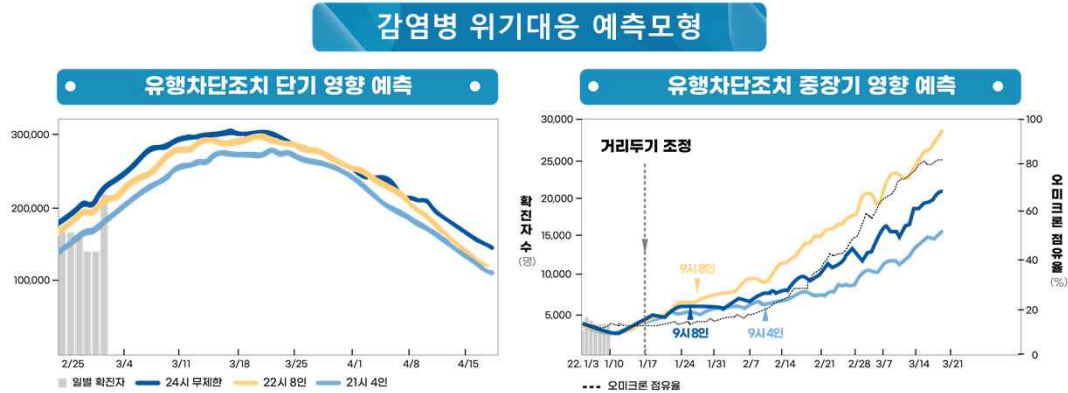
추진 방향

- ❖ 분야별 분절적으로 수집·관리되던 감염병 예방관리 데이터의 통합·연계
- ❖ 다양한 감시와 조사결과를 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
- ❖ 이를 기반으로 진단기술 및 백신·치료제 연구 주도

1 근거중심 방역체계 강화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감염병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역단계부터 신고,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전과정 정보시스템 통합·연계
-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 잠복기, 2차발병률 등 핵심 역학정보의 신속 파악, 대규모 접촉자 체계적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 **(예측모형 확립)** 감염병 특성별 발생규모, 유행양상 등 단기 및 중장기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 소요 추계



② 감시·조사체계 다각화

-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 유행상황 조기인지를 위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의료기관을 통한 호흡기감염병 통합발생감시체계 운영
- **(병원체감시 확대)** 항생제내성균 조사감시체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병원체, 의료관련감염 감시 병원체와 대상기관 확대
- **(하수(下水)감시)** 기존 감염병감시체계의 한계(개인정보 유출 등)를 보완한 생활하수 검사기관 확충으로 무증상자 병원체 검출 확대
 - * 전국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율 ('23) 50% → ('24) 60%
 - 측정방법 : 전국 인구수 대비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감시 대상 하수처리장 처리지역 관할 인구수 비율(%)
- **(혈청조사)** 계절 인플루엔자 등 대유행 가능성 높은 감염병의 예방 접종 효과분석을 위한 정기 혈청조사체계 마련

③ 감염병 진단기술 고도화

- **(선제적 기술 확보)** 국내 유입·확산 가능한 미래감염병 및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검사법 선제적 구축
- **(진단기술법 개선)** 유사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에 대한 다중진단 검사법 구축 등 분석 방법 고도화를 통한 진단검사 정확도 및 신속성 향상

④ 백신 및 치료제개발 연구 주도

- **(백신개발기술 고도화)**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대응 가능한 mRNA 기술 등 백신 개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백신 개발 추진
- **(필수백신 자급화)** A형간염, 일본뇌염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 지원
-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신종변이 가능성이 높은 RNA바이러스의 공통감염기전(세포침투, 자기복제, 방출 등)을 억제하는 치료제 개발 지원



4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추진 방향

- ❖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의견이 반영된 법·제도의 정비
- ❖ 의료시설 확충, 방역물자 비축관리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 견고화
- ❖ 다부처·민관협력 강화, 글로벌 협력체계 및 연구개발 기반 강화

① 법·제도 재정비 및 협업 확대

- **(거버넌스 정립)** 감염병 대응 주관기관(복지부·질병청) 및 관계기관, 지자체의 위기단계별 역할 정비, 위기관리기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정립
- * ‘경계’ 단계까지 상시 인프라로 질병청이 방역·의료 대응 총괄, 병상·의료 인력 동원 등이 필요한 ‘심각’ 단계는 복지부가 의료 대응 총괄

- **(법체계 정비)** 현장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체계 정비 추진
- **(민관협력)**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유관 협의체, 각 분야별 학회, 현장전문가와 협업 강화

② 지역사회 참여, 역량 및 소통 강화

- **(지역협력체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중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단위 감시·분석, 현장대응 등 감염병 예방관리전략 수립·운영
*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지역 전문가단체 등
- **(국민참여 소통)** 허위조작정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포데믹 통합 정보센터 구축·운영하고, 양방향 소통, 국민소통 참여 활성화

③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인프라 구축

-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신속대응체계 구축, 장기유행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수립('23)하여 추진
- **(의료시설·물자)** 고위험환자 입원치료를 위한 중앙감염병병원('27)·권역 감염병병원 확충 및 위기대비 물자·장비 수급관리시스템 구축



④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 (감염병대응 국제화) GHS* 조정사무소 설치 및 해외감염병 정보수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감염병예방관리 국제공조 강화
 - * 글로벌 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 (기술지원 확대) 대륙별 거점국가 대상 감염병 감시 및 위험평가, 실험실 진단,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학조사 등 글로벌 기술지원 확대
 - * ('22)아세안, 라오스 등 2개국 → ('23)몽골, 아프리카 등 4개국 → ('24~)중동지역 국가추가
- (교류확대) 독일·싱가포르 등 국외 병원체자원은행 협력체계를 통한 자원교류를 추진하고, 생물안전4등급시설(BL4) 글로벌네트워크 참여

⑤ 감염병관리 R&D 기반 공고화

- (R&D 총괄기획)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핵심 타깃병원체 설정, 진단-치료-백신 연구성과를 위한 혁신원천기술 확보 방안 연구 기획
- (현장연계 R&D) 감염병 예방관리 전주기 단계별 현장수요를 기반으로 감시-예측-차단-진단-방역물품 중점개발기술 연구 추진
- (연구자원 공공인프라) 국내 보유 병원체자원의 제출 의무화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한 민간분양* 활성화
 - * 진단기술연구, 대학·의료기관 교육, 백신·치료제개발 목적 활용